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대학 발표

2006학년도부터 8개 국립대가 4개로 통폐합되고, 15개 국·사립대 입학정원이 2007학년도까지 총 4,500여명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체제를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대학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국·공·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6학년도부터 8개 국립대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이 4개 대학으로 통폐합된다.

이러한 4개 통·폐합 대학의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444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의 12.6%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예산 800억 가운데 500억 원을 국립대 통폐합에 지원했다.

대학별 향후 4년간 지원금은 전남대 309억원, 강원대 259억원, 부산대 290억원, 공주대 219억원, 충주대 169억원 등 모두 1,249억원에 달한다.

수도권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국공립 대학 및 지방대학 7개 등 15개 대학도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은 총 4,529명 줄인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지원받는 대학의 2007학년도까지의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서울대 625명, 고려대 386명, 성균관대 300명, 인하대 399명, 이화여대 328명, 한양대 544명, 경희대 595명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관계자는 "지난 학기 50여명의 정원감축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학교구조개혁 지원사업은 구조개혁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기사항 2



대학생 휴학은 왜하는가

대학생 휴학 실태조사

60.5% “휴학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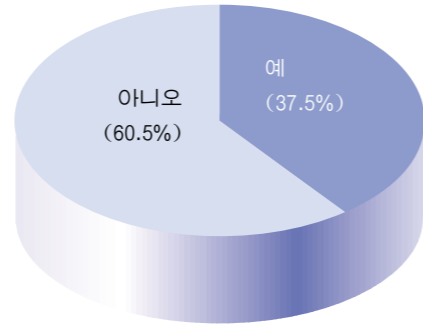
어학연수, 다양한 경험 등 취업준비위해 휴학 선택

우리 신문은 '2005 대학생 현주소'라는 큰 틀 아래 2학기 동안 △영어 △휴학 △대학생 의식을 주제로 단기기획을 진행해 왔다. 두번째 단기기획은 휴학과 관련한 '대학생 휴학은 왜 하는가'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휴학경험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휴학 관련 설문조사

1. 휴학 동안 본인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대학생 휴학률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IMF 이후 우리 사회 청년 실업률은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초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휴학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남학생의 군입대 혹은 가정형편의 어려움이 휴학의 주된 사유였지만 최근에는 취업준비를 위해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4년 4년제 대학 휴학생은 57만 여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55만명에 비해 2만 여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외환위기가 닥친 당시에도 36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휴학생의 증가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학교를 살펴보자. △2003년= 2,760명(1학기)/ 2,998명(2학기) △2004년= 2,767명/ 3,108명 △2005년= 3,011명이 휴학생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에 한 관계자는 "이번 해에는 최근 들어 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35.4%는 휴학경험이 있었다. 3명중 1명이 휴학을 경험한 셈이다. 휴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57.3%는 '앞으로

휴학계획이 있다'고 답해 휴학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들은 휴학을 했고, 앞으로 휴학을 하려는 것일까. 우선 남학생의 군대문제를 제외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23.3% △어학연수= 9.3% △영어공부= 4.7% △취업준비= 3.5%이 휴학을 했었다.

그리고 앞으로 휴학계획은 △어학연수= 30.4% △다양한 경험= 30.4% △취업준비= 9.8% △영어공부= 7.6%였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어학연수 그리고 영어공부 등 흔히 말하는 '스펙(학점, 토익점수 등)을 일컫는 속어'를 올리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설문진(행정3)학생은 "어학연수 통해 영어능력 향상 등 다양한 문화 등을 접하는 등 휴학기간을 알차게 보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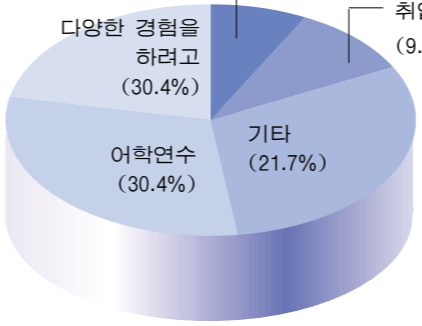
하지만 유행처럼 번진,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휴학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한 학생 중의 60.5%가 '지난 휴학생활에 불만족한다'고 답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중규(불교3)군은 "휴학 후에 내가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달랐다"며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휴학한다면 점점 나태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휴학에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은 대학생들의 소득 없는 휴학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삼성 SDS 인사담당자는 "휴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없다"하지만 "어학연수 등 특별한 이유 없이하는 장기휴학은 면접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듯하다"고 말했다.

휴학기간을 불만족으로 보낸

2. 휴학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 것을 보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휴학으로 해소하는 '막무가내'형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휴학에는 계획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휴학은 어쩌면 휴학에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취업통계조사 공정성 시비

각 대학 부풀리기식 통계 문제

최근 다양한 경로로 각 대학 관련 평가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평가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고 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371개 대학 졸업생(지난해 8월, 올해 2월 졸업) 53만 여명을 대상으로 취업통계를 조사한 것이다.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학교가 속한 A그룹(2,000명 이상)에서는 중앙대가 85.1%의 취업률을 보여 전국 1위에 올랐다.

또한 인제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가 뒤를 이어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학교는 20위 순위에 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취업센터의 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중앙대의 경우 지난해 취업률이 60%대였는데, 단 1년 사이에 취업률이 20%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취업률 통계에는 이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교대, 의대, 간호대, 한의대, 약대 등이 있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취업률 통계가 학생 수 뿐만 아니라 대학 특성에 따라서 구분돼 집계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발표된 최근 2년간 사범대별 교원임용고시 합격 현황 또한 이러한 통계 조사의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합격 순위가 1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순위가 기록됐다.

이와 관련해 사범대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졸업 후 2년, 3년이 경과한 재수생은 물론 교육대학원 출신 그리고 비사대 교직이수자까지 총망라하여 합격자로 제출하였고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당해 연도 졸업자 중 합격자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점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가를 받는 주제와 평가결과를 받아보는 주제 모두가 인정하는 평가 방식 정착되지 않는다면,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농구부 종합전적 3위

선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선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대학농구 2차 연맹전에서 우리 학교 농구부(감독=최희암)가 종합전적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우리학교는 지난 1차전 때 예선 탈락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예선전적 4승 1패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매년 3회에 걸쳐 치러지는 대학연맹전의 2번째 대회로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대학농구 최강팀들이 모두 출전한 비종있는 대회였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단 10명의 선수로만 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결선리그에서도 큰 무리 없이

경기를 마쳤다. 연세대와의 결선 리그전에서는 마지막까지 10여점 차로 앞서 있었으나 막판 실책과 상대팀의 공격으로 동점골을 허용, 연장전 끝에 104:100으로 아쉽게 패했다.

결선리그 두 번째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경기를 리드해가며 93:86으로 경기를 마감했다.

또한 마지막 날 고려대와의 순위 결정전에서 86:96으로 패해 종합전적 3위에 올랐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10 고시생들의 든든한 길동무 이상동 직원



가파른 산정상에 혼자서 올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길동무가 함께 한다면 힘든 산행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렇듯 사법고시패스라는 목표를 향해 힘든 산행을 하고 있는 계산고시학사 학생들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계산고시학사 고시지도위원인 이상동 직원이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라며 칭찬 받은 소감을 밝힌 그.

그는 계산고시학사에서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학습프로그램을 짜는 등 사시반에 대한 모든 일을 총지도 하고 있다. 사법고시 결과가 발표 되면 고시에서 떨어진 학생들과 술잔잔하며 편안한 친구처럼 그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힘든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학생들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기에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른다. 그는 사법고시에서 여러번 고배를 마셨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수차례의 좌절에도 다시 일어나는 그의 오펝이 정신은 지금 실패를 겪고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계산고시학사를 활용해 정보도 공유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소 짓는 이상동 직원. 그는 아마도 지금보다 늘어난 동국인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조계에서 당당히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

iamjh713@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싹!
집중

발전기금 060-700-0119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상쾌한' 결과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교육혁명, 동국발전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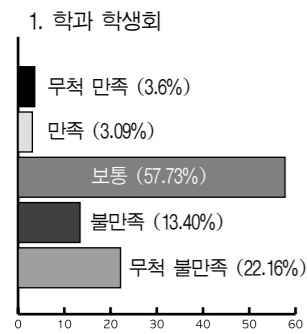
학생들은 학생회에 관해 이렇게 생각한다

② 학과·단과대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보다 긍정적 평가

학과 학생회 활동 만족도 낮아 ... 학과 학생회 행사참여율 가장 높아

지금까지 학생회 활동에 만족합니까?



제38대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우리 신문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비례추출법을 통해 총 24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학생들 중 학과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77%, 단과대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72%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에서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 77%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보다 단과대 학생회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5% 정도 낮게 느끼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12개 단과대는 모두 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속한 단과대에 학생회가 구성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8%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는 학생회가 없다고 답했다. 21%의 학생들이 단과대 학생회의 구성 여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과대 학생회 활동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55%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라고 답한 학

생들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19%를 기록했다.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는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보다 긍정적이다. 총학생회의 경우, 9%학생들이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61%학생들이 보통, 불만족은 24% 학생들이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총학생회보다 단과대 학생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과 학생회의 경우는 학과 학생회 활동 만족도 부문에서 총학생회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단지 3% 학생만이 학과 학생회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58% 학생이 보통,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13%, 무척 불만족이라고 답한 학생들도 22%에 달했다.

단과대 학생회 주최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부 참여라고 답한 학생들이 4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완전불참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완전 불참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6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총학생회 설문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른 결과다. 학과 학생회 또한 일부 참여라고 답한 학생들이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은 완전불참 28%가 뒤를 이었다. 단과대 학생회 주최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유로는 35%학생들이 소속 학과 학생으로서 권리·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7% 학생이 재미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단과대 학생들간 교류 관계 유지라고 26% 학생들이 응답했다. 이는 단과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은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보다는 학생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보다 단과대 학생회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단과대 학생회 활동에 가장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 학생회나 총학생회보다 학과 학생회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도가 가장 높으므로 이를 활용해 학과 차원에서부터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학과 학생회가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 사업을 펼치고, 단과대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회 조지를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신임 심익섭 기획처장 인터뷰

“구심점 되어 동국인 하나로 모을 것”



지난 달 22일 신임 기획처장에 심익섭(행정학)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기획처장 인사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으로 이번 임명은 전 기획처장 사임 후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신임 심익섭 기획처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 건학 10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기에 기획처장으로 부임했는데 소감은?
= 아마도 지금이 개교 100주년을 위한 준비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기획처장에 부임하게 되어 부담이 크지만, 오는 2006년 성공적인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힘든 만큼 보람차고 의미있는 일을 맡게 된 것 같다.

- 100주년 비전 선포식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는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 학교에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 위원회를 조직해 장·단기 학교 발전 계획을 연구해 왔다. 마스터플랜 위원회는 그동안 교

육혁신 분과위원회와 캠퍼스 혁신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현재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마스터 플랜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캠퍼스의 개념을 바꿔 볼 생각이다. 이는 열린 캠퍼스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학교 밖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중구에 대학타운을 형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할 역할은 무엇인지?
= 그동안 우리학교는 내년에 건학 10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전 동국 구성원들이 '동국대학교'라는 명칭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계,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 모든 동국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100주년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 의견을 논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나누도록 할 것이다. 기획처의 정보를 모든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와도 접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회전무대

발상의 전환

○...우리학교 휴학생이 고지식한 학교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계절학기보다는 정규학기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생은 재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가 없다고.

휴학생들이 계절학기를 들으며 복학을 준비하거나 학점을 채우는 등 휴학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갈대가 될 수 없는 뽕뽕한 '둥'대나무(東竹)?!'

매점은 편식 중

○...우리학교 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아이스크림과 빵은 그 밖에 그 반찬이라는데, 알아본즉 특정 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 보관냉장고를 무료로 대여 받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기 위해 그 업체에서 제조하는 것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수지타산을 고려한 운영방식은 이해 할 수는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매점에 가면, 골라먹는 재미가 없다?!'

언제나 대출중(?)

○...우리학교에는 원활한 책 대출까지 생각하는 발효유가 없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일부 학생들이 책을 보고 제자리에 꽂아 두지 않아 도서 검색장에 '대출가능'이라고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제자리에 꽂아 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눈에 띄는 곳에 놓아 도서 관리자가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중도의 상쾌한 대출을 위한 헬리코박터 Will(마음자세, 태도)이 필요합니다?!'

동악미로

○...외부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학교는 모험의 캠퍼스라는 데, 알아본즉 각 건물 명칭과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부족해 눈에 잘 띄지 않아 외부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라는 것.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판과 학교 지도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우리학교 캠퍼스 방문 가이드없는 동악탐방?!'

단과대 다채로운 행사 진행 도약 위한 2005동연제도 열려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각 단과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10일)부터 문과대학(회장=차주철·목문3)은 문과대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명진체전'을 진행하고 사과대(회장=유민지·사회4)는 오는 11일부터 '능금제'를 개최한다.

▲ '명진체전'은 오늘(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경기종목은 △축구 △농구 △여자단체줄넘기이고, 참가인원은 △축구 11명(후보 4명) △농구 5명(후보 3명) △여자단체줄넘기 8명이다. 참가 접수는 문과대 학생회장이나 각 학과 학생회장에게 신청가능하다.

▲ '능금제'는 오는 11일부터 13

일까지 3일간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11일에는 동아리 '탈'의 개막 축하 공연(오후 1시)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체육대회(오후 3시) △6.15m 김밥팔이 대회(오후 5시) △놀이마당 △떡거리마당 △폐막식(오후 6시), 통일광장 앞순으로 축제가 펼쳐진다. 놀이마당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생회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에는 다묘도 만들고 디카사진 경연대회가 열린다.

또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소원사과등 만들기 행사'는 동국관 앞에서 사과모양의 등에 사과대 학생들의 소원을 붙여 등을 다는 방식

으로 진행되며 이 행사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사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백산맥 읽고 지리산 가기' 행사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행사는 소설 '태백산맥'의 시대적 배경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잊혀진 역사를 되짚어보고, 역사적 의미를 찾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행사 참여접수는 사과대 학생회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사과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권은영·영문4)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2005 동연제'를 진행한다. '2005 동연제'는 올해 동아리 연합회가 비대위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침체된 동아리 연합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27일 오후 1시부터 팔정도와 동아리 곳곳에 각 동아리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고, 그

와 함께 검도동아리와 무예누리의 시연도 펼쳐진다. 또한 학생회관 앞에서는 아름다운가게(오후 1시~6시)가 열린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재단을 통해 사회로 환원될 예정이다.

27일은 영화제(오후 6시)가 진행되며, 28일은 오후 1시부터 동아리 곳곳에서 동아리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고 검도동아리와 무예누리의 시연도 진행된다. 립보와 단체줄넘기와 같은 체육경기도 열린다. 단체인(립보 3명, 단체줄넘기 7명 신청가능)은 동아리만 신청가능하며 개인전은 동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폐막제 공연이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만해광장에 찾은 학생들에게 생맥주와 팝콘 등의 음식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해>

iamjh713@dongguk.edu

연구년 교원 23명 선정

연구처(처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가 2006학년도 연구년 교원 23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연구년으로 선정된 교원은 △1학기 단과대(김현정(반도체과학), 유석천(경제학),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연순(화학), 김혜중(통계학), 김삼동(전자공학), 이지호(토목환경공학), 이명천(생명·화학공학), 한철호(역사교육학), 김주환(지리교육학), △2학기 단과대=정수현(인어일본학), 과노성(국제통상학), △2학기 장기=임돈

희(사학), 김형상(물리학), 이영환(경제학), 송일호(경제학), 이호규(신문방송학), 황인석(전자공학), 방세운(기계공학), 오세만(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이재훈(정보통신공학), 김정환(영화영상학)이다. 연구년 기간은 단기는 6개월, 장기는 12개월이며 △1학기 단과대=2006년 3월~8월 △1학기 장기=2006년 3월~2007년 2월 △2학기 단과대=2006년 9월~2007년 2월 △2학기 장기=2006년 9월~2007년 8월까지이다.

생협발전 방안 공모 안내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독립법인 출범 2주년을 맞아, 비영리 소비자 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비전 정립과, 참신하고 발전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유익한 지침이 될 방안 설계에 참여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교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공모과제는 본교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생협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1. 공모대상 : 생협발전 방안
2. 공모지역 : 서울캠퍼스 교원으로서 본 조합원 (단독 혹은 공동)
3. 공모분야
 - 가. 생협 경영의 합리화 관련 분야
 - 나. 교내 복지 서비스 향상 관련 분야
 -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미션 및 비전 관련 분야
 - 라. 기타 생협 발전에 대한 제언 등
4. 공모과제 지원금 : 일금일백만원(₩1,000,000), 0명
5. 신청기간 : 2005년 10월 17일
6. 제출기한 : 2005년 10월 23일까지
7.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공모과제 시행 계획서 포함)
 - * 응모신청서 download(http://dgcoop.dongguk.ac.kr)
8. 접수방법 및 문의
 - 가. 접수 : 생협 사무국 교원위원회(혜화관 1층)
 - 나. 문의 : ☎ 2260-8953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원위원회

2학기 서적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KG북 플러스 제휴도서를 아래와 같이 특별 할인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기간 : 2005. 10. 10(월) ~ 10. 21(금) / 2주간
2. 장소 : 상록원 입구
3. 할인도서

구분	내 용	할인율
KG북 플러스 (협찬업체)	균일가	1,000원 ~ 4,000원
	세계명작	50% 할인
	컴퓨터서적, 시공사, 대원사, 여행서 등	30% 할인
	책세상	20% 할인
	외국서적, 신간, 권장도서	지정가 할인

4. 한정수량만 판매하므로 조기품절 될 수 있음
 - * 문의 : 다량관 교내서점(☎02-2260-8956, 8968)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치 생산공장 견학

최근 중국산 김치의 증속 다량 검출에 대한 보도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납품하는 김치 생산공장을 직접 견학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생협 조합원은 참가 신청 바랍니다.

1. 견학일시 : 2005. 10. 14(금) / 14:00 출발
2. 견학장소 : (주)기정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재
3. 신청지역 : 생협조합원 누구나(교직원, 학생 등)
4. 견학내용
 - 1) 김치 생산과정 견학
 - 2) 김치 시식
5. 신청장소 : 생협사무국(혜화관 1층) / ☎02-2260-8949
6. 참고사항
 - 1) 신청서 다운로드 : http://dgcoop.dongguk.ac.kr
 - 2)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증정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배 스님 후임이사 선임 10일 이후로 연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지난 7일 이사 후보로 영배 스님 추천



지난 6일 본관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사회 모습이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영배 스님 후임 이사 선임이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6일 11시 본관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213차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진은 논란 끝에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선임 승인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

한 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사항을 오늘(10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통도사 축산승가회 소속 30여명의 스님들이 중앙종회에서 후보 추천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로 이사진을 다루는 이사

회를 강행하는 것은 종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회의장에 진입해 이사회 진행이 난항을 겪은 결과다.

통도사 축산승가회 소속 30여명의 스님들은 이사회가 개회되기 전부터 본관 앞에서 영배 스님의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며 '영배스님은 통도사를 떠나라' '통도사의 주권을 받지 않은 이사 선출을 철회하라'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통도사 축산승가회 소속 스님들은 11시에 이사회가 시작되자 회의장에 진입, 이사회가 강행될 경우 무력행사도 불사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진 현재 스님은 이사회 회의를 선언했다.

이날 시위에 앞서 통도사 축산승가회는 지난 5일 상임 이사 영배 스님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축산승가회는 성명서에서 "동국대학교 이사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변질되고 심지어는 일부 이사도 있다"며 영배 스님이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1시간 뒤 다시 속개된 이사회에서 영배 스님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인건은 사립학교법에 전혀 저촉되는 것들이 아니지만, 종립학교위원회와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며 "다른 이사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모든 인건을 중앙종회 이후 열리는 이사회로 이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에서 인준을 받을 이사 후보에 영배 스님이 추천됐다. 이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회가 이사회가 열린 다음 날(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실에서 제61차 회의를 갖고 선정한 것이다. 종관위 회의는 이사회후보 영배 스님과 대봉 스님을 추천받아 투표한 결과 각각 7표와 무효 1표가 나와 재투표를 실시했다. 재투표에서 영배스님이 8표를 획득해 동국대학교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오늘(10일) 임시중앙종회는 영배스님과 종관위에서 기 추천한 현문 스님을 대상으로 인준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이사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 이사로 선출하게 된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우리학교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을 우려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책모임 금강회는 동국대 이사 선출을 총무원장 선거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모처럼만에 조성된 종파간 화합의 분위기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깨지게 될 것을 걱정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현황

시설인가 조건 아직 충족 못해

공간문제, 학내 구성원 합의 절실

지난 5월 2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그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 등 일부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로스쿨 정원 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는 로스쿨 도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학교 법대는 지난해 3월부터 로스쿨 추진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며 지난 8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추진단'을 발족해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로스쿨 인가 조건은 △총 교원의 20% 이상 이변화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13명의 전임교수와 2명의 교수를 특별초빙했으며 앞으로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 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우리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시설 인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한양대의 경우 현재 제3법학관을 준공하고 있으며, 중앙대도 법학독립건물이 2007년 완공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로스쿨의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독

립건물 확보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타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학교가 시설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명(법학) 교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형적 시설·설비와 함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중요한 평가지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 법학전문대학원 특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삼경(법학) 교수는 "우리학교는 21세기 환경 본능에 초점을 맞춰 환경 전문가를 통한 환경법학 분야를 특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5월 경에 각 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통해 2006년 하반기에는 로스쿨에 대한 최종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현행 법학제도변형특별법이 상정됐으며 로스쿨 관련 입법안은 10월 말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동약로

'그 분'이 오실 때

"사무실에 바뀌어 할 용품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대학종합평가(이하 대총평)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 없는 날'을 시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대총평 현장실사'를 앞두고 많은 부서들이 준비가 한창이다. 클리닝 오피스는 매년 진행하던 일 정으로서 이번 대총평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차 없는 날'은 오로지 대총평 현장실사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평가위원이 학교 구성원과 직접 면담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교수, 직원, 학생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비전 등의 인지도와 복지 부문 만족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초등학교 때 교육감이 방문하는 날이던 전교생이 학교 대청소를 하던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학교는 그 날 이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금

세 더러워지곤 했다. 이러한 보여주기 식의 자세는 현장실사 전에 제출한 자체 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한 교직원은 "평가 점수로 각 대학별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합심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후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우선 점수는 잘 맞고 보자는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쓸쓸한 현실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학종합평가를 받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진짜 '작가'는 ...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초청강연회 '신경림 · 조정래 문인과의 대화'가 지난 7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신경림 시인이, 오후에는 조정래 소설가가 '나의 삶 나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차없는 날 20일, 21일 시행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 없는 날'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20일~22일 이뤄지는 대학종합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전 동국인의 참여를 부탁했다.

이로써 협소한 교내 주차공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평가위원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본관 내 부서 재배치 공사 완료

학생선발실 확장공사 · 교무기획팀 3층으로 이전

지난 2일 본관의 일부 부서 재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완료됐다.

3층에 위치했던 학생선발실은 내부 확장공사로 넓어진 공간을 학생상담실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2층에 있던 교무기획팀이 3층 학생선발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대부분의 교무처 부서들이 3층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무기획팀도 3층으로 자리를 옮겨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동한 것이다.

기존에 2층에 있던 교수학습개발센터도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을 보다 가깝게 활용하고자 지난달 20일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출입구 좌측)으로 이전했다.

재외국민전형 접수 14일까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2006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57명이며 인문·자연계열은 필답고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예능계열(미술학부·연극전공)은 실기고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한편 필답고사와 실기고사 및 면접은 모두 11월 19일에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학100주년 기념법회

정각원(원장=이진월)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개최한다.

전 조계종 포교 원장을 지낸 무장장 스님이 법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는 교직원, 학생,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안중철 법사는 "우리학교의 큰 행사인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D-200에 열리는 의미 있는 법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일류동국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후원금 종류

100만등당기 기금, 발전기금, 불교병원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단원기금, 동국사랑저금동기금, 수증음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기부자님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참여방법

일시완납, 월납,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개인, 법인 및 단체 명의로 후원 가능
 계좌이체(CMS)를 통한 편리한 방법 가능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의 수증음품으로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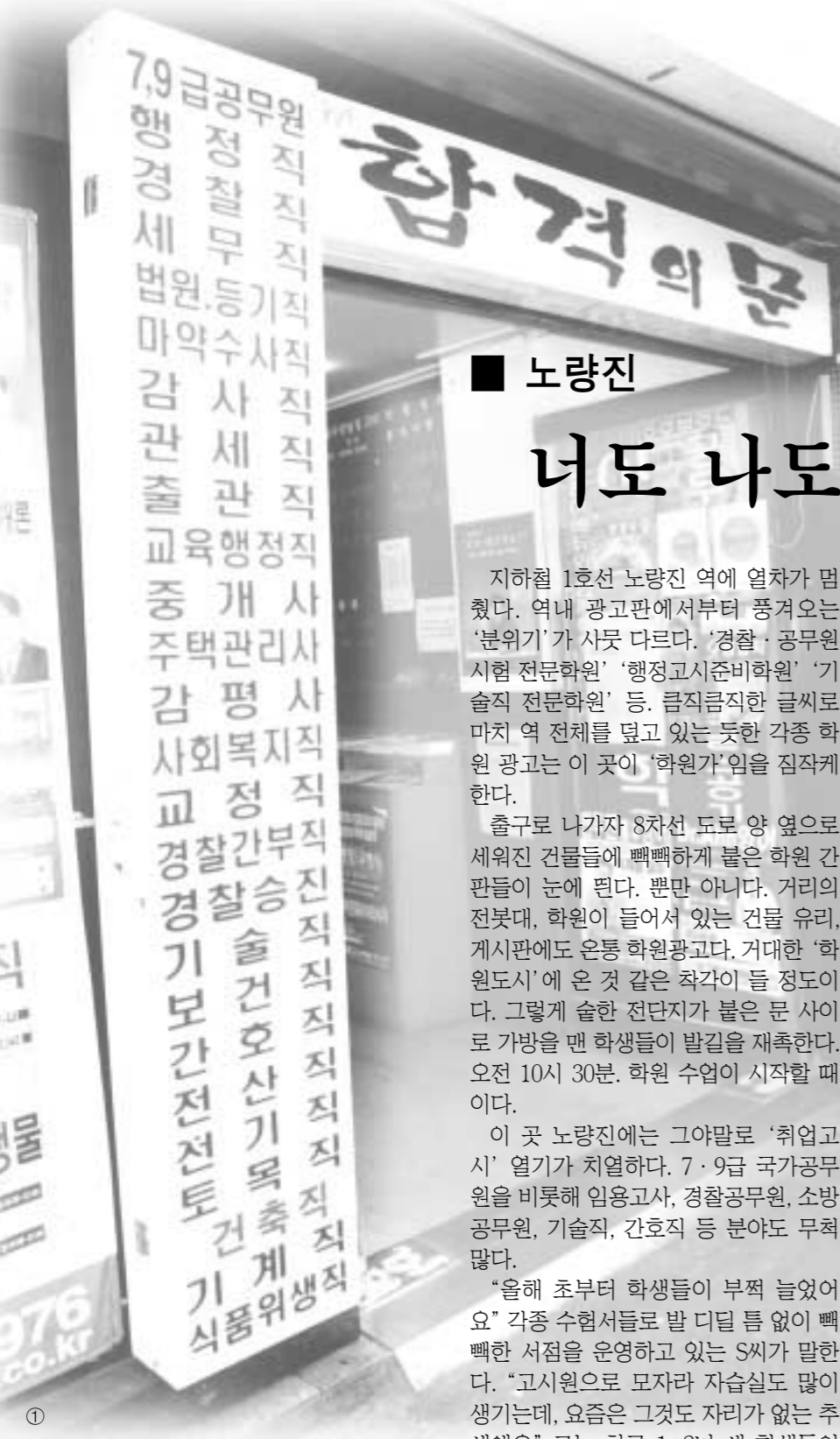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실 T 02-2260-3794~5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실 T 054-770-2100
 ARS 기금접수 060-7000-119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고시촌 르포

열기 후끈한 생존 경쟁 지대



■ 노량진

너도 나도 “안정적인 공무원 좋아”

지하철 1호선 노량진 역에 열차가 멈췄다. 역내 광고판에서부터 풍겨오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경찰·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행정고시준비학원’ ‘기술직 전문학원’ 등, 큼직한 글씨로 마치 역 전체를 덮고 있는 듯한 각종 학원 광고는 이 곳이 ‘학원가’임을 집적케 한다.

출구로 나가자 8차선 도로 양 옆으로 세워진 건물들에 뻗박하게 붙은 학원 간판들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다. 거리의 전봇대, 학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 유리, 게시판에도 온통 학원광고다. 거대한 ‘학원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그렇게 술한 전단지가 붙은 문 사이로 가방을 맨 학생들이 발길을 재촉한다. 오전 10시 30분, 학원 수업이 시작할 때이다.

이 곳 노량진에는 그야말로 ‘취업고시’ 열기가 치열하다. 7·9급 국가공무원을 비롯해 임용고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기술직, 간호직 등 분야도 무척 많다.

“올해 초부터 학생들이 부쩍 늘었어요” 각종 수험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뻗박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S씨가 말한다. “고시원으로 모자라 자습실도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그것도 자리가 없는 추세예요” 그는 최근 1~2년 새 학생들이

부쩍 이 곳을 많이 찾는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또한 “가장 잘 팔리는 책은 공무원 시험서”라고 덧붙인다.

작은 골목에는 웃지 못할 풍경도 보인다. ‘○○○교수 ○○○학 노트’, 모 교수의 좋은 강의를 필기한 노트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접수 올리기 식’ 시험 준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만 하다.

“인터뷰 할 시간 없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니 여러 명의 점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말한다. 12시부터 학생들이 밀려들어와 빨리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가 식당들은 대체로 오전 11시부터 무척 바쁘다. 학생들이 오후 1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물밀듯이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큰 길 가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점은 물려드는 학생들로 정신없어 아르바이트 하기 힘든 장소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렇듯 노량진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신림동과 구별되는 특징은, 이 곳에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량진에는 진짜 고시보다 더 치열한 ‘고시’가 있다. 바로 ‘취업고시’다. 취업난이 악화되자 많은 학생들이 기업입사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찾아나서는 추세다.

비야흐로 ‘고시’ 시대다. 기존의 행정고시,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임용고사 등 대부분의 국가 자격증 시험 자체가 ‘고시화’되고 있다.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들어가는 문은 비늘구멍이다. 신림동과 노량진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신림동과 노량진 르포를 통해 실제 고시촌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학생들이 왜 각종 국가시험으로 ‘전향’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지난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00:1에 육박했다”고 말하는 E학원의 한 상담자는 “국가에서 채용 인원을 늘려주어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 경쟁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는 평소 상담을 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딱히 진출할 분야가 없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택하는 학생이나, 휴학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그는 “아무래도 기술직은 전공자들이 유리한 반면, 공무원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휴학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S대학 J양은 “전공은 다르지만,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채용인원도 많아서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털어놓는다.

이렇듯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꿈과는 상관없이 단지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좁은 학원 강의실 앞에 뻗박히 들어서서 강의를 기다리는 전편입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취직’이라는 암세포에 젊은이들의 ‘꿈을 향한 도전’ 세포가 점령당하고 있는 듯한 우리 사회의 씩씩한 모습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사설

누구를 위한 ‘침해’인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정구 교수를 지칭하면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강의 내용 참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이 상공회의소 출입기자들에게 발언했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대외적인 평가에서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는 지금, 이 발언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강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것이다.

물론 강 교수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의 취업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다. 김 부회장은 “강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시장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올바른 경제관이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강 교수의 강의를 들은 것과 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까. 김 부회장은 ‘강 교수 죽이기’에 혈안이 돼 괜히 우리학교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대학생이 아무리 ‘취업 입시생’으로 변했다지만 상아탑에서 학문을 닦는 학생이다. 모든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교수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설령 김 부회장의 입장처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강의를 들은 학생이 의심스럽다면 강의기록을 점검하는 것보다 면접 등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득권 층의 권력남용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요즘 기업들이 내세우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어떻게 학습되는 것일까. 취업을 미끼로 대자본의 이해를 대사회에 관철시키면 되는 것인가. 김 부회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우리기업은 체제에 순응하고 보수 기득권 층에 안주하려는 사원들로만 채워질 것이다.

동국만평

정명근 gmgoe@hanmail.net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신림동

‘외로운’ 학생 겨냥한 유해업소 증가

9월 16일,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국이 떠들썩하건만 ‘신림동 고시촌’의 저녁은 여느 날과 다를없다. 오히려 고시학원들은 이번 추석에 맞아 ‘추석특강’ 개최에 분주하다.

“명절이지만 집에 안가요. 연휴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강을 들으려고요” 수업이 끝나 이제 막 학원을 나서는 한 학생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듯 이야기한다.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에게 추석은 여느 ‘일요일’과 다를없다는 듯 보인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10분정도 가면 흔히 ‘신림동 고시촌’으로 불리는 신림9동에 다다를 수 있다. 각종 음식점, 노래방 등을 알리는 네온사인이 가득한 모습은 다른 변화가와 다를없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유난히 고시원, 학원, 서점이 많다는 것이다.

버스 안내방송을 듣고 목적지에 내리자, 마침 학원이 끝난 시간인 듯 버스정류장에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정류장 광고판에는

‘잠만 자는 방’ ‘하숙’을 구하는 전단지로 원래 광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저 골목으로 올라가면 대부분이 고시원이예요” 한 노점상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니 한 건물 건너, 혹은 그 골목에 이어지는 다른 골목들에 3~4층짜리 독서실, 고시원들이 가득하다. 저녁때가 막 지나서인지,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도 지금 이곳은 조금 한산한 시기다. “시험 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상점에서 만난 한 여학생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신림동 고시촌’에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어, 지난 6월에 있던 시험이 끝나자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사법고시 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과 토익점수반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고시원보다 학교나 학원,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하지만 신림동에는 꾸준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분야는 처음부터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한 사시 준비생의 말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시대 흐름에 따라 진로를 바꾸는 이들도 많다. D고시원 앞에서 만난 한 준비생은 “38세가 정년이라는 삭막한 말이 나오는 요즘 같은 때에 대기업에 입사해도 불안하다”며 “행사에 사시에 합격하면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

고시 준비는 최근 들어 더욱 일찍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대에 재학 중인 N군은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신림동에 왔다”며 “주변 선·후배나 동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신림동에 고시 준비생들이 모이는 이유는 저렴한 방값, 조용한 분위기 등 오래전부터 공부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시원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88년부터 이 곳에 터전을 잡은 생필품 상점주인 S씨는 “주변에 약국·서점이 줄어들고 유흥시설이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안타까워한다. 고시 준비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악해, 최근 스포츠마사지류 가장한 준 성행위를 하는 곳, 스코린경마장 같은 시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신림동 고시촌도 변하고 있다. 고시촌에 들어오는 목적이나 계기,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주변 환경까지 모두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것에는 변함없다. 이들의 레이스가 사회의 요구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꿈을 향한 것일 때, 신림동 고시촌의 태양은 더욱 환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사진설명

- ① 노량진의 한 학원에 들어가는 문에 ‘합격의문’이라는 장식이 되었다.
- ② 각종 고시학원이 가득 들어차있는 노량진의 한 건물.
- ③ 학원을 향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
- ④ 추석맞이 특강을 알리는 포스터로 가득한 신림동 고시원 건물 게시판.
- ⑤ 하숙을 구하는 전단지들이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가득하다.
- ⑥ 유명 강사 필기노트를 판매하는 노량진의 한 가게.

지난 달 진행된 일본 총선이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나 급속히 보수 우경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와 추종 우익세력들은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향해 거침없이 치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의 국가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다뤄 보았다.
편집자

일본의 군국주의

<현황> 미국 등에 업고 군사역할 증대 ... 아시아 평화 위협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고있다. 전적으로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의 나라 일본이 전지구적이라크에 증무장한 자위대를 파병하고 올해 중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해 테러, 북한 미사일 등 실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 이와 관련, 선제공격권이 나오고 특수부대가 창설되고 있다. 보통국가 일본에 남은 건 실제 총을 쏘는 일이다. 그것도 조만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보루인 평화헌법의 개정은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자민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격상시키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자위권이란 우방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본국이 침략받을 경우 한하던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사실상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진짜 일본이 아니었다. 평화헌법이라는 패전의 글에 있던 일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본은 진짜 일본이 된다. 한·일 관계는 '은사마' 불에도 적지 않은 악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을사조약

100주년이며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은 다시 보통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국가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국내에는 미국이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병마 개라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테러 이전 동맹이 방어 또는 역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테러 이후 동맹은 미국의 반테러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일본은 9·11 테러 이후 동맹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즉 군사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분명한 점은 미국만이 보통국가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 동맹이 없다면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다. 결국 미·일 동맹이 유지되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미·일 동맹 내에서의 보통국가 일본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범위일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다룰 힘이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

일 동맹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건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도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우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만을 우려하지만 중국도 최근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비에서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힘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한 다자협력 안보의 틀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 안보의 틀에서 일본·중국 등의 증대되는 힘을 건설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하는 일도 역내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은 다자협력 안보의 틀과 함께 일본의 진로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사실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는 군국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 결국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확고히 하는 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고 한·일 협력을 심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 주변국들은 평화국가 일본에 익숙해 있다.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는 우리에게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안심과 설득의 재료였다. 이제 이 두 기둥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일본의 급속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미·일 동맹이나 보통국가화라는 틀로 설명하려 하지만, 우리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것은 보통국가 일본의 몫이다.

최관 객원기자(경철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일러스트=(현)

<역사> 칼에서 시작된 일본의 군국주의

야스쿠니 신사가 정신적 모태 ... 재무장 부추겨

일본 군국주의의 모습을 메이지유신의 전후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868년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은 일본을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다. 일본의 중세는 막부의 번주에 의한 무가정권의 통치였다. 무가정권을 지방할 수 있었던 집단인 사무라이(무사)계급의 출현으로 근대와 중세로 나눌 수 있다.

무사계급은 칼로써 모든 것을 말하는 집단으로 싸움의 기술과 힘의 세기로서 집단내 서열을 가르던 그들은 12세기말에는 주인으로 섬기던 귀족에 대항하여 무가정권-바쿠후를 장권했다.

그 후 새로운 계층으로 대두되었던 농민과 상공업자들을 칼의 힘과 논리로 제압하고 약 700년에 걸쳐 일본 정계를 주도한 무가정권은 1866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일왕제(日王制)의 근대적 통일 국가에 흡수되었다.

무사들은 칼 휴대를 금지 당했고 봉건 영주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무사도는 일왕제 근대 국가의 군대에 계승되었다. 봉건의 지배층이 산업발전을 주도한 일본은 봉건에서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야할 민중적 정치, 사회적 변화가 배제되었고, 이

것은 정부 주도의 군국주의로, 그리고 군국주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모습으로 근대의 일본을 무장시켰다.

19세기는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위협에 의해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르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미 임진왜란 동안 새로운 무기인 총포로 전쟁의 승리를 맞본 일본은 개방과 함께 더욱 빠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국가의 기틀을 정비한 일본은 조선을 필두로 아시아 침탈을 자행했다. 40여년의 제국주의적 아시아 침탈은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을 끌어 들였고, 핵폭탄으로 제국의 침탈을 마감했다.

이렇듯이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이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신적인 모태는 야스쿠니 신사이다.

야스쿠니는 일왕이 직접 참배하는 신사이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1938년부터 일왕은 일본의 유해군 대원수의 자격으로 군복을 입고 봄, 가을로

전국의 유족을 초대하여 전사자의 공적을 찬양하고, 영령을 위령하는 의식을 지른다.

나라를 위한 순국열사의 뜻을 기리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 죽은 군인들을 신으로 승격시킨다. 여기에는 패전 시에 자살한 군인들도 신으로 승격하는데 이것은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의 모습이 아니며 전쟁 자체에 대한 일왕, 그리고 일본정신의 단면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에 나가 죽은 자들을 사후에 신으로 추대하는 국가적 의식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미련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패배후의 군사적인 재무장과 전쟁권의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을 위협하며 극우 집단들이

원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3@dongguk.edu

미사일
일러스트=(현)

(대처) '평화'로 통일 이끌어야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다"(맑스)는 말처럼 지도자들이 국익에 최선인 국가 전략을 깨닫기는 쉬우나 그런 전략을 위한 상황조성은 어렵다고 본다. 바로, 일본 지도자들이 국익에 최선인 동북아 세력 판도를 찾아내기는 쉽지만 그런 세력판도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한데, 일본이 동북아 4강의 역학구도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일본은 너무나 쉽게 '상황'을 조성할 수가 있다. 바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의 낙인은 현재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본이 과거처럼 군국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동북아 국가들에 줄 것이며, 이는 일본이 쉽게 동북아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조성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위해 세력판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동북아 국가들이 이런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에,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동북아 국가들의 학습된 패턴 그리고 낙인은 일본의 국력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원하는 동북아 세력판도 변화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최선일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일본의 국력을 가지고 동북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100여 년 전처럼 동북아 국가들이 이런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 민족주의로 고립을 자초하고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려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즉, 일본의 군국주의가 세계평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세계평화라는 명분으로 국제사회나 동북아 국가들이 연대하려 하지 않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평화에 반하는 자충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평화라는 명분을 주장하려면 자국부터 지금껏 평화노선을 추구했어야 하는 것이기에, 사실 동북아 국가들은 평화라는 명분을 주장할 정당성은 취약한 것이다. 바로, 100여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 평화라는 명분으로 일본에 대처하지 않고 일본 군국주의에 희생된 전례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정작 일본의 군국주의의 성향을 낙인찍었을 뿐 자신들에게 평화라는 명분이 취약함은 낙인되어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보다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평화라는 명분이 취약한 점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 세력판도 변화를 좌지우지 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핵, 북한 인권 그리고 통일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처하는 최선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규철 객원기자(경철학 박사과정)
orange972@dongguk.edu

중영도서관 신작도서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스님 지음 / 이원희 옮김, 도솔,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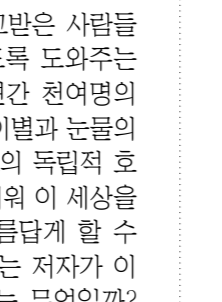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해온 스님이 10년간 천여명의 죽음을 배움하며 얻은 숭한 이별과 눈물의 사연을 엮은 책. 불교계 최초의 독립적 호스피스 마을인 정보마을을 세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법'보다 '잘 죽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살인자
로베르트 반 홀릭 지음 / 이희재 옮김, 황금가지, 2005



네덜란드인인 저자가 중국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서술한 이색적인 추리소설. 주인공 '디리지'는 실존인물로 TV드라마로 잘 알려진 '판관 포청천'과 함께 아직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당나라 시대의 명재상이다. 중국 전통소설 형식을 그대로 빌려 이야기를 구성했으며, 실제 전해내려오는 사건을 토대로 하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치밀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세 물 세 개의 비밀'에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다.

야옹양의 두근두근 연애요리
김민희 지음, 21세기 북스,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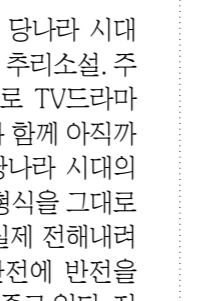
네이버에서 인기 블로그를 운영중인 저자가 사랑에 관한 예세이와 요리를 묶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요리를 좋아하는 저자가 알뜰담공한 연애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다.

일률적인 요리책이 아니라 좀 더 상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고추장 스파게티, 닭지볶음, 굴소스 오므라이스, 호두파이... 목차만 넘겨봐도 군침이 도는 책이다.

여회계사 사건수첩
아마다 신야 지음 / 김진태 옮김, 랜덤하우스중앙, 2005



회계현장을 여러 가지 사건과 더불어 생생하게 그려주는 비즈니스 소설. 명석하고 재치 있는 여성 회계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여러 종류의 일들을 재미있고 소상하게 그려내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식 회계란 무엇인지,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등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추적해 나가는 주인공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웬만큼의 회계지식이 쌓일 수도... 부록으로 회계용어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바람

정의홍

너는 때로 칼날이 된다. 칼날이 된 바람은 우리들 편이다. 검은 구름을 매질해 보낼 때, 흙먼지가 낀 세상을 맑음하게 닦아낼 때, 헛된 것에 손을 주는 자에게 가시가 될 때, 아직도 눈알이 똑바로 박히지 않은 자에게 교훈이 될 때, 너는 때로 칼날이 된다. 바람은 항상 우리들 편이다.

- 정의홍, '바람' 중에서

정의홍(1944-1996). 그의 시집을 꺼내 읽다가, 책갈피에서 명함 크기의 종이쪽지를 발견했다. 우편물 봉투에 적었던 주소를 오려둔 것이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가람아파트 1동 904호'. 하루를 살아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하던 시인의 옛 주소엔 여전히 그의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

문득 시인의 큰 아들 생각이 났다. 아버지 대신 '동국문학상'을 받은 날, 수상소감을 말하던 모습이다. "저는 지금 제 아버지가 부럽습니다. 아니, 샘이 납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 당신에게 상을 주고 그렇게 서둘러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선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질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들의 그 진솔한 회백에서 아버지의 개결

濼한 시적 진술을 떠올린다. 정의홍은 아무 것도 감추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 시집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의 어느 쪽을 펼쳐 읽어보아도 그의 시는 투명하다. 대부분 '시대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험악한 싸움의 기록인데도 문학이 마땅히 붙잡고 있어야 할 진정성의 끈을 놓아버린 작품은 하나도 없다.

믿는 것이 있는 까닭이다. 이틀이면 이런 믿음. "바람은 항상 우리들 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순리와 진리 그리고 설리의 바람이다.

시인의 바람(願)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스러지기도 하는 바람(風)이다. 그를 데려간 것도 바로 그 바람이었을 것이다.

윤 제 립
시인, 서울예대 교수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재보 : dgupress@dongguk.edu

소비행위에서만 찾는 '웰빙'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참살이 만드자

'참살이(웰빙)'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코드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뉴욕에서 건너온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자연, 건강, 안정 등 정신적인 가치까지 추구하는 삶의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윤행하는 참살이 스타일로 바꾸기만 하면 진정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참살이의 등장은 물질문명의 한계를 자각하고 내부에 주목해

야 한다는 '마음공화'의 깨달음을 공유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일이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인간사회에서 자기 혼자만의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 하고 참살이가 욕망의 소비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먹고 소위 물 좋은 요가 센터회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소비 행위로만 인식되고 있는 점이다. 물질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참살이가 원래 뜻과는 달리 사치스

러운 삶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고양시키는 가장 뜻있는 행위는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사회적 연대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참살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말초적 욕망추구를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남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걸음 쉬어가는 것,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살이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건강,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지현 (법과대 법1)

학교의 다양한 문화행사 반가워 체계화시켜 대외 이미지 높였으면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가을, 학교는 지난 봄 축제 때보다도 더 축제 분위기 같다. 여러학과들의 학술제와 더불어 100주년 기념 가요제와 응원전 등의 행사 때문이다. 살짝 들뜬 리허설 소리만큼이나 설렘으로 들떠있는 학생들의 표정을 발견하고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라며 문화의 힘을 역설했던 백범 김구 선생을 떠올렸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칭해도 좋을 만큼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세계는 무기가 아닌 문화로 다스려지고 있고, 이것이 세계경제까지 좌지우지한다. 문화는 이미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그 이상의 힘을 지니게 된 것이다. 동국인도 이러한 문화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문화의 향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성인이자 문화인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학교가 가진 큰 힘

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5일장 영화제나 동국 락 페스티벌, 독서퀴즈 대회,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에서 학교내의 이러한 행사들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기적 행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더없이 좋겠다. 또, 이와 더불어 외부인사 초청 특강이나 외부 문화행사 유치 및 협력 등을 통해 문화를 중심으로 대외이미지를 제고한다면 더 큰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희 (문과대 독문1)

현실 무게가 버거워 힘들 때 내안의 순수함을 꺼내보자

마이클잭슨의 최근 기사를 접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아파왔다. 나와 같게도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말하는 마이클잭슨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 자신이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상받고 싶기라도 했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동경했다고 했다. 비록 성추행 사건에 여러 차례 휘말려 마음이 이미 닫혀졌지만 아직도 그에게 아이들의 동심과 순진무구함은 소유하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신뢰의 보루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쉽사리 공감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라버린 혹은 너무 무뎠어버린 키와 감정, 정에 회의를 보내며 유년시절의 순수함을 그리워하지는 않았던가? 피터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내 어린 시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아버린 나이지만 아직도 유아적인 이 꿈을 내동댕이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수 없는 이상에의 동경인가, 좌절에

굴하고 싶지 않은 일말의 오기일까. 가끔 꿈에서 하늘을 유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는 그 꿈속에서조차 눈부신 비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만큼이나 내가 현실적인 어른이 돼버린걸까. 나를 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 전해서 기분이 씩씩하다. 가야할 길이 바빠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는 나와 내 친구들, 선배들에게 고조곤히 이야기해 본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숨을 고르며 잊고 있던 피터팬을 꺼워보라고.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 감춰둔 내 안의 순수함을 꺼내보라고. 이설희 (사과대1)

아직도 멀기만 한 문화강국



논단

송희경
뮤지컬카드 공연팀장

최근 국제적인 규모로 열린 대형 공연행사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적인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첫 내한공연이 공연 이틀 전 갑자기 무산되었고, 지난 5일~9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오페라단의 대작(大作) '나부코'는 주역가수, 지휘자가 모두 변경된 채 공연에 올랐다. 사실 이번 대형공연의 취소사태는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 독일 록밴드 스피어온스의 내한공연 취소, 9월 '카르멘' 주역가수 3명 출연 취소, 10월 '돈 텔 맘마' 취소, 11월 대형 콘서트 '라이브 패스트 2004'가 행사 당일 현장에

서 취소와 한류열풍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대형공연의 취소는 공연시장이 상업화,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이런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가 없다. 모두가 어렵게 이루어낸 문화강국의 이미지가 아닌가. 아시아의 문화 선진국이란 타이틀을 얻기까지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아시아를 방문하였고, 수많은 교류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몇몇 아마추어 기획사들로 인해 한국은 아무 때나 공연을 취소해도 되는 나라, 부르는 대로 개런티를 주는 나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연기획사 전문성의 부재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국내 공연시장이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공연계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유명 아티스트를 내세운 신생기획사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획력을 갖추지 못한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다. 국내에 전문공연기획사를 양성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도 몇 안되고, 대형 공연을 유치한 경력력을 지닌 기획사도 손에 꼽을 정도니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조건 비싼 개런티와 로열티

를 주고 유명공연을 유치하기만 하면 전문가로 인정되는 공연시장의 과소평가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15%의 로열티를 주고 들어온 '오페라의 유령'이 전문성 있는 기획사와 손잡지 않았다면 과연 95%의 객석 점유율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외국공연인들의 무분별한 수입이 원인이다. 영화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있는데 공연에는 스테이지쿼터제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훌륭한 공연으로 시장을 넓히고 관객들의 눈높이를 높였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규제책 하나 없는 제도적 허술함은 창작공연을 만들기보다는 라이선스공연을 수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과연 매출액의 28%가 넘는 로열티를 주고 해외 대형뮤지컬을 들여와야만 하는 것인가. 한류를 만들어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공연 몇 달 전에 몇 십만 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 하는 관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문화정신적 형성되었다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적 성숙함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독자 사진첩



고추 따기... 풍성한 가을 추수를 시샘이라도 하듯, 빨갛게 익은 고추는 무지막히게 매운 기운을 풍겨냈다. 예취! - 아종 · 동아리 개태마을 농활대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주환, 편집인: 김주환, 부편집인: 김주환, 편집장: 김주환, 발행처: 동대신문,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보리수

갈애

시작은 장대했으나 그 끝이 황망하여 이제는 기억조차 아득한 육망의 잔치로 연금술이라는 게 있다. 연금술이란 철이나 구리 등의 값싼 금속들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기술이다. 금이나 철 모두 4원소(흙, 불, 물,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단지 4원소가 담긴 비늘과 형태에서만 다를 뿐이라는 발상에서 시작했으므로, 제법 자연과학적 풍모를 지닌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중세의 수도사나 귀족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와 뉴턴조차도 연금술에 전력했지만, 도리어 뉴턴 역학이 퍼지고 라부아지에의 근대 화학이 확립되자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서양의 연금술에 대비되는 것으로 중국에는 연단술이 있다. 연단술이란 불로장생을 위하여 황화수은의 일종인 금단을 조제하여 복용하는 도교의 신선도술을 말한다. 금을 양으로 수은을 음으로 간주하는 음양이원론에 토대를 두고, 금단을 복용하면 피를 순화시켜 몸이 쇠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당 황실에서만 6명의 황제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자,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비록 연금술이 화학의 발달을 가져오고 연단술이 화학의 제조에 기여했지만, 연금술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중세의 귀족이 몰락하고 연단술로 말미암아 여러 황제가 중독사한 것은 과도한 육망의 비참함을 잘 보여준다. 연금술을 통한 부의 획득과 연단술에 의한 불로장생의 추구는 모두 귀족과 황제처럼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과도한 육망이 마치 타는 목마름과도 같으므로 이를 갈애라 하였고, 이런 육망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흡사 맞바람에 건초로 만든 뿔뿔을 들고 가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지 황제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김종욱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200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제출 안내

- 대상자 : 200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포함)
- 논문제출 기간 : 2005년 11월 4일(금)까지
- 제출처
가. 주전공 : 각 학과(전공) 지도교수님께
나.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 각 학과(전공) 사무실
- 논문 심사 결과 : 2005년 11월 24일(금)까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
- 논문심사 결과입력 : 2005년 12월 2일(금)까지
- 논문심사결과 확인 : 2005년 12월 12일(월) 이후 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가. 논문 하나로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인정 불가
나. 위 기간에 논문 미제출자는 학위수여 불가

교무처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10월) 시행

- 가. 접수 : 10. 10(월) ~ 10. 13(목) 24:00까지
나.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 응시료 입금
다. 시험 : 2005. 10. 22(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라. 대상 : 영어PASS제 대상자 350명
※ 모의토의 신청자 : 개별 방문접수(반명함사진 부착, 사진신분증 지참)
마. 응시료 : 5,000원
바. 입금마감일 : 2005. 10. 13(목)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조흥 371-03-011192(Korean Program)**
사.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1.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학적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후 다음 주 중 접수완료안내메일을 보내드리므로, 학생개인정보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3.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이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전화번호, 다른 이름 등 금지)
4. 인원이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응시가능여부를 숙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취소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사프)자,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차. 시험 주의사항 :
1. 10시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2.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0/10)	부대찌개 (2000)	순만두국 (2000)	된장찌개 (3200)
	삼선적구이 (2000)	닭도리탕 (2000)	돈갈비김치찌개 (3500)
	하이리이스 (2000)	계란햄볶음밥 (1800)	닭갈비 (3500)
화 (10/11)	사골우거지탕 (1800)	된장찌개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치즈볶음밥 (2000)	제육겉옷볶음덮밥 (2000)	콩나물국밥 (3500)
수 (10/12)	오징어채볶음 (2000)	비빔밥세트 (2000)	황태구이 (3800)
	어묵우동 (1800)	육개장 (2000)	된장찌개 (3200)
	닭갈비 (2000)	집채덮밥 (2000)	초밥우동 (3800)
목 (10/13)	불고기비빔밥 (2000)	두부김치 (20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쇠고기국밥 (1800)	참치김치찌개 (1800)	된장찌개 (32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카레리이스 (2000)	설렁탕 (3500)
금 (10/14)	해물김치볶음밥 (2000)	간통기 (2000)	이면수구이 (3800)
	비지리수제비 (1800)	계란말이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팔보채 (2000)	쇠고기볶음밥 (1800)	영양술밥 (3500)
	떡양념치킨 (2000)	꾸꾸미콩나물볶음 (2000)	해물짬 (3800)

달하나 천강에

더불어 사는 동국인들의 윤리 찾기



허남결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아침 일찍 연구실이 있는 만해관으로 들어 서다 보면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 입구가 담배꽂초와 찢다 버린 껌 조각들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본다. 마음속으로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놓아두고 왜 저

렇게 하냐고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김없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혼잣말을 듣게 된다.

아주머니의 말씀인즉슨 담배꽂초를 맨바닥에 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새하얀 대리석 위에 시커먼 자국이 남도록 비벼 끄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화장실 주변에는 쓰다 남은 휴지들이 물에 젖은 채 여기 저기 나뒹굴고 있는 날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다. 아마도 필요 이상의 휴지를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

또한 세면대 좌우 벽면의 물비누통은 거의 언제나 망가져 있거나 마른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다루는 동국인들을 볼 때마다 나의 도덕 선상 기질은 아침부터 열을 받기 시작한다. 더욱이 이렇게 달아오른 날에는 유독 눈에 거슬리는 캠퍼스 커플들의 모습을

학교 안팎에서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들은 아무데서나 서로의 시선을 한 곳에 모은 채 끊임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작거리거나 쓰다듬는다. 말 그대로 사랑의 스킨십을 교환하는 의식이라. 이럴 때면 옆을 지나치기가 여간 민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겸연쩍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 보지만 다른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나 혼자만 그들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보내고 있어 스스로 무안해지고 만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하찮은 일상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일들이 쌓이다보면 결국 사회적인 몰연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진김에 잔소리 한마디를 더해도 될지 모르겠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운동 시합 중 상대방 불이 엔드라인 근처에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아웃'이라고 소리쳐 놓고 보는 동호인들과 골프장에서 남의 눈을 피해 공의 위치를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반사인 골퍼들이 과연 사회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져 본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은 정해진 규범 대신 편법과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유형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글로벌 윤리의식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내 주변의 작은 실천들이 곧 사회전체의 인식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 본다.

동국 히노애락



▲ 경주캠퍼스 설치승인에 대한 기사



▲ 경주캠퍼스 기공식



▲ 경주캠퍼스 인문사회학관



▲ 경주캠퍼스 중앙도서관

5 경주캠퍼스 개교

우리학교는 72년간의 다져온 저력과 전통을 기반으로 경주대학 건설을 추진했다. 대학 당국은 문교부로부터 1978년 10월 7일 경주분교 설치승인을 받아 197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확정하고 입학정원 각 40명의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국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외어과 △불교미술과 △회계학과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직 중인 정재각 총장은 이곳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 확장 이상으로 큰 민족문화사적 의의를 지니는 숭고한 결심의 소산이라 했다.

경주캠퍼스 건물들은 전통적인 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설계가 검토됐다. 때문에 캠퍼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면화풍도의 최적조건을 구비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상의 기간으로 1979학년도에 입학했던 신입생은 경주고등학교의 신축건물에서 임시로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로열쇠

- 1. 지구 위의 모든 지역, 온 세상, 모든 나라.
- 5. 병역복무대체형태로 해당기술 직무 분야에서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 또는 운송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제도.
- 7. 건학100주년 D-200기념으로 제1회 00000가 지난 5일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 9. 손수 밥을 지어 먹음, 또는 그 일, 학교 주변에서 00를 하다.
- 10.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지키, 우리 국군의 철통 같은 00 태세.
- 11. 우리나라의 수도, 우리 학교는 00특별시 중구 필동에 위치하고 있다.
- 12. 지난 5일 우리학교 건학100주년 예술인동문들이 명예홍보00로 위촉되었다.

세로열쇠

- 2. 우리학교 00고시학사에서 언론, 사법고시를 준비

퍼즐 - 동대신문이 보인다

-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3. 군대의 사기, 고참이 00를 잡다.
- 4.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는 동아리에게 000을 주고 있다.
- 6. 사회과학대는 오는 11~13일까지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 000를 개최한다.
- 7. 조선 순조 때 정약용이 지은 책, 이서의 통폐를 지적하여 관리의 바른길을 깨우치려고 사례를 들어 풀이한 내용.
-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000을 폐지했다.
- 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방위 조직, 일본000.

1412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축	구	부	사	람	속	명	찰	비	병	결	음
평	가	원	식	당	오	사	국	제	통	상	영
회	외	국	어	당첨자	손주현(국교2)	구혜은(국교2)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분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1월 7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흥미와 관심 유발하는 기사 많았으면 '회전무대'에서 기자들의 세심함 느껴

어떤 잡지든 신문이든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신문이나 잡지를 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첫 페이지에서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호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려 있던 (백상)마라톤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교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호 신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도 학생들을 위한 기사는 많다. 하지만 구독률을 높이려면 교내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는 기사가 많아 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보도면의 '회전무대'는 기자들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들이 흔히 지나치만한 내용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마지막에 한마

디형식으로 짧게 마무리한 점이 인상 깊었다.

여론·칼럼면의 '동국 히노애락' 면에서도 우리학교의 역사를 소개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내년이면 건학100주년이 되는 우리학교의 역사를 소개하여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새학년의 '취업성공기' '따면 좋을 자격증' 등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2주간 인기 검색어'도 2주간 있었던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제작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위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학생들에게 좋은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건투를 빈다.

김홍배 (공과대 전자1)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2. 일 정 가. 제4회 독서토론 일시 : 10월10일(월) 오후3시-5시 장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진행 : 영희영상학과 조종홍교수 선정도서 : 한국영화 색수염리터를 만나다 / 유지나, 조종홍 외 지음, 생각의나무 정월 : 10명 나. 제5회 독서토론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4시-6시 장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진행 : 문예창작학과 장영우교수 선정도서 : 순남 / 황석영, 장작비행사 2008 정월 : 10명
-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으로 모집하며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토론회 참석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특강 공고

본교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대비하고 협력률을 제고하고자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과 목 : 교육학 강의 7과목 2번씩, 총 14회
- ▶ 기 간 : 2005년 10월 10일(월) ~ 10월 27일(목)
- ▶ 강의시간 : 매일 18:00 ~ 19:40 (100분 강의)
- ▶ 장 소 : 학림관 J201
- ▶ 수 강 료 : 무료(교재는 수강자에 한하여 지급함)
- ▶ 교 재 : 교재는 수강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특강 개설일 수강등록후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배부함.

◎ 시 간 표

일자	과목명	교수	장소	비고
10/10(월)	교육과정 및 평가	이찬주	J201	
10/11(화)	교육과정 및 평가	이찬주	J201	
10/12(수)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J201	
10/13(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정혜정	J201	
10/14(금)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영희	J201	
10/17(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영희	J201	
10/18(화)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정혜정	J201	
10/19(수)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J201	
10/20(목)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J201	
10/21(금)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심연미	J201	
10/24(월)	교육학개론	예철해	J201	
10/25(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허영주	J201	
10/26(수)	교육학개론	예철해	J201	
10/27(목)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허영주	J201	

중앙도서관

교육실습동의서 접수

2006학년도 교육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실습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 2006학년도 1학기 4학년(7학기이상)재학 예정인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2. 접수기간 : 2006년 4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실습학교사정에 따라 5일 실습도 가능함)
- 3. 관련서류 : 가. 교육실습합조 공문 나. 교육실습 동의서(소정양식)
- 4.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10.6(목) ~ 11. 4(금)
- 5. 교부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가능
- 6. 동의서 제출 및 교육실습 절차 안내 사범대학 교학에서 관련서류 교부 → 모교나 교육실습희망학교 방문 → 연구주임선생님이나 교생 담당선생님께 교육실습 공문과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동의서를 제출 → 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날인 받음 → 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행정지원실에 제출 → 200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006년 3월 O.T 실시 → 2006년 4월 또는 5월에 교육실습
- 7. 제출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 8. 유의사항 : 가. 사범대학생 중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에 문의 및 접수바람. 나. 비사범계 학생중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범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바람. (☎2260-3751, 신청서 접수) 다.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 또는 5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실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라. 교육실습시 실습교과목은 주전공(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마. 교육실습 학교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 불가.

사범대학

건학 100주년 명예홍보대사 위촉·간담회 열려

이덕화·고현정 등 21명 연예인 동문 선정



지난 5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건학 100주년 예술인 동문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및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위촉식에는 현덕영 연극영화과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동국예술인회 회장 이덕화 동문 외 11명의 '스타'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덕화 동문과 강석우, 이경규, 최민식, 이경실, 채시라

의 축제가 아닌 만큼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외부에 학교를 알리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여 동문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학교 예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화 동문은 "예술인 동문들이 연극영화과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수 있

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시라 동문은 "지난해에 조직된 예술인회 모임에서도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홍보대사들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되는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모금행사 등에서 홍보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외적으로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 홍보, 발전기금 조성사업 참여와 일산불교병원 건강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실의 박혁상 과장은 "앞으로의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홍보분야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된 영화배우 최민식 동문을 만나

"연기에 전념하며 모교 사랑할 것"

이번 행사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진짜' 배우이자 자랑스러운 선배, 최민식 동문을 만나 홍보대사로 선정된 소감과 학교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오르기도 한다. 지금의 배우 생활을 하는 데에 이러한 기억들이 큰 힘이 되곤 할 때가 있다.

-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된 소감은, = 먼저 이렇게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점도 있다. 홍보대사로서 외형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현재 하고 있는 배우로서의 일에 정진하고 그것에서 인정받는 것이 또한 학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느낌과 앞으로의 계획, = 학교를 둘러보았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캠퍼스 투어에서 중앙도서관을 들렀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없었던 건물이라 기분이 새로웠다. 선·후배들과 자주 갔던 '백상' 매점이 없어진 점은 섭섭하기도 하다. 앞으로도 현재 하고 있는 연기 활동에 충실할 계획이고 시간이 닿는다면 최대한 모교의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선배를 만나다

"꿈꾸는 분야에 집중 투자 하세요"



한국관광경영연구원 남태석(관광경영 91졸)동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여행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의 삶에 패턴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관광경영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우리학교 남태석 동문이 바로 그이다. "현장에 뛰어들어 보다 활동적으로 일하며, 관광산업 분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어 직접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남 동문은 10년 동안의 문경대 관광경영학과와 세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생활을 거쳐 올해 3월, '한국관광경영연구원'을 설립했다. 현재는 5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소규모 연구원이지만 활동분야만큼은 여느 연구소보다도 광범위하다. 관광경영과 호텔경영 연구에서부터 관광상품 개발, 이벤트·축제 기획, 관련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 길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 관광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관광경영학이 종합학문인 동시에 실용학문이라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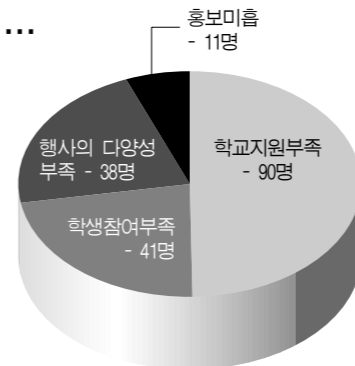
서 충분한 매력을 느꼈다. "관광 산업이 아직 우리사회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망이 밝을 것"이라며 관심을 바라기도 한다. 남 동문은 대학시절 시작한 관광서비스학회 홍보부장 활동부터 타워호텔 마케팅 홍보 등과 같은 실무 경험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요인이라고 회상한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이 꿈꾸는 분야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젊은 날의 꿈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라며 자신 있는 하나의 특기를 발견하고 그 분야를 깊게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들 중 우리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는 남 동문. 하지만 우리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문들이 문체야한다 고 말한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와 후배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학교 내에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관광산

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내보이는 남태석 동문. 그가 특히 강조했던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기에 충분하다.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국인'의 향기가 느껴진다. 정영아 기자 brightah@dongguk.edu

리서치

목요일 1시 상륙원에서는 ...

"우리학교 축제, 이런 점이 아쉽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각 단과대들과 동아리 축제 등으로 동약이 '들쭉' 거리고 있다. 대학생들의 낭만 중 하나인 학교 축제 중, 학생들은 어떤 점을 가장 '목말라' 하고 있을까. 이에 지난 6일 우리 신문에서는 동국인 남녀 180명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축제, 이런 점이 아쉽다'를 주제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학교의 지원 부족을 선택한 학생이 90명(50%)를 차지했으며, 학생들의 참여 부족이 41명(22.7%), 행사의 다양성 부족 38명(21.7%)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미흡한 홍보는 11명(6.1%)에 그쳤다. 이번 결과와 기타 의견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학생들은 각종 단과대, 동아리 축제 행사 등에서 학교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 △ 대부분의 학과가 상업적이고 비슷한 게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학문적인 내용들도 함께 다루면 더욱 유익할 것 같아요 - 김의성(중문2) △ 홍보가 부족해요. 마이크로 알리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과별 지원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 이미성(법2) △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송(법2)

인물동정

용인동문회 회장에 박만갑 동문



지난달 29일에 열린 용인동문회 창립총회에서 박만갑(정외 68졸)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동문은 이번 선출에 대해 "용인 동문회 선출은 학교의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동문회로 거듭나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동문회는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300여명의 동문들이 지난 7월 발기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존 용인지역 동문 모임과 통합돼 새롭게 재 창립된 단체이다. 그 밖에 부회장 직에는 장준영(정행 70졸) 동문과 우태주(경영 70졸), 장동락(정의 77졸)동문이 선출됐다.

송명호 평택시장 겸임교수 위촉



송명호 평택시장이 지난달 1일 우리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위촉되었다. 이는 송 시장이 지역 최대 현안 사항인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탁월한 행정력과 넓은 국제적 감각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지역문제를 풀어 간 것을 인정받아 선임된 것이다. 이로써 송 시장은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법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강좌로 강의를 시작한다.

중구 장충문화체육센터 회원모집

회원가입문의전화 : 2264-7624/5

쾌적한 독서 공간~ 활기찬 헬스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는...

- 조용하고 아늑한 독서실과 옥상공원 및 휴게실 설치
■ 유산소 운동기구, 웨이트 운동기구 등 최신의 운동 기구 준비
■ 전문 헬스 트레이너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용자 개개인의 체력과 운동목에 알맞은 과학적인 지도

독서실 이용안내

이용회비 : 1회 입장시 500원
이용대상 :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 중구민 누구나

독서실은 남자 126석, 여자 120석으로 최신의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쾌적한 인테리어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헬스센터 회원모집

참여대상 : 누구나
참가회비 : 1개월 회비 - 35,000원
1일 이용회비 - 3,000원



운영시간 및 회원 접수시간

헬스장/독서실 : (월~토) 06:00 ~ 22:00
(일, 공휴일) 09:30 ~ 18:00

- ※ 헬스 월 회원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독서실 이용 중 소지품을 가지고 퇴실한 경우에는 이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장 정리를 위해 주 1회 휴무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전문적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강사진

장충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

동아리 지원 실태 분석

대학문화 다양성 존중돼야

동아리 지원금 작년보다 3만원 증가 ... 회장들 적극성 필요

지난 1학기 때 개최된 댄스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얼마 전 열린 목막가요제 등 최근 학교의 대규모 지원 아래 열리는 문화행사가 부쩍 늘었다.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공연이 외부인들의 공연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학내 댄스동아리나 대중음악동아리, 클래식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혹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락 페스티벌은 락 동아리 '피어리스 락'이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경우다. 이를 통해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댄스 페스티벌이나 목막가요제에서도 댄스 동아리들의 특별 공연이 이뤄졌다. 또한 수요일악회에도 외부 공연자들 외에 학내 클래식 음악 동아리들의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시해야 할 것은 학교 행사가 그렇게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동아리는 전체 중앙 동아리 70개 중 10%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일부 동아리들은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향상된 지원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아리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아리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자금 사

정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동아리 지원금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그 한도 내에서 기존에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했던 제도가 2번으로 늘어났다. 또한 올해 동아리 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됨에 따라 동아리 연합회 활동비로 각 동아리들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지원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동아리의 경우 한 회 공연 예산이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최소 2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면 동아리로서는 큰 부담을 더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동아리 공연 때 학교에서 무대를 지원받기란 쉽지 않다.

공연 동아리에 가입해 있는 한 학생은 "특정 동아리 사업 하나에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여러 동아리들에게 골고루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동아리는 공연준비에도 부담이 덜하지만, 그렇지 못한 동아리는 신입생 환영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권은영 동연 비대위원장은 "동아리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분야로만 한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실 동아리 담당 김해덕 직원은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추세가 대중음악이다 보니 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동아리들의 공연이 이뤄지도록, 각 동아리에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아리 회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젊은이들의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접하거나 행하기 힘든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구성원들 수에서는 예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30년이 넘는 중앙동아리들은 여전히 그 정신을 유지하고 이어오는 이들이 많다.

단지 요즘의 '경향'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외면하다보면 대학문화의 정신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때문에 학교의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통해 흥미위주가 아닌 깊이 있는 대학문화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최인희 기자 mh705@dongguk.edu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작가 황석영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부조리한 현실 비판 작품 통해 앞장 서

90년, 나는 독일에서 돌아와 곧바로 조세희의 '난 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샀다. 그러나 황석영의 방북(89년), 그 후 독일·미국 체류, 귀국(93년), 뒤이은 형무소 생활, 석방 등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황석영은 과시적인 허영심에 휩싸여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단순히 과시적인 허영심으로 수십 년간 같은 발걸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기 에다 번뜩이는 글재주와 치밀한 사고력을 겸비한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황석영은 70년대 초 간혹공작사, 구로공단 등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험은 '객지' '삼포 가는 길'에 녹아 있으며, 74년 이후 한국일보에 '장길산'이 연재되는 동안 해남, 광주로 이주해 생활하고(76-85년), 그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체험하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를 세상에 내놓기도 한다.

황석영은 70·80년대 우리사회의 얼굴이다. 아니, 우리들 대부분이 부정·비판의 생각을 겨우 혼자말로 중얼거릴 때, 그는 스스로를 혼돈의 소용돌이 와중에 내몰린 채 중심을 잃지 않고 헛발질을 높이 치켜든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러나 황석영의 훌륭함은 우리의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져 간 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황석영은 이제 새로이 형성되는 사회구조 및 세계문명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재충전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자신의 토로를 통해 알고 있다.

목막가요제·백상응원페스티벌 스케치

서늘한 가을밤 뜨겁게 달아오른 동악

지난 5일과 6일, 저녁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지만 많은 동국인들은 추위를 잊고 대운동장의 뜨거운 축제 열기에 빠져 있었다. 건학 100주년 D-200일을 기념해 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목막가요제와, 우리학교 백상응원단의 백상응원 페스티벌이 잇달아 열린 것이다.

5일 오전부터 대운동장에 설치된 대형무대는 오고가는 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학내 곳곳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는 수업이 끝난 학생들의 발걸음을 대운동장으로 끌어 들였다.

목막가요제는 대상에게 100만원의 장학금과 가수인증서가 부여되는 만큼 예선부터 치열했다. 총 123개 팀이 참여해 단 12팀만 본선에 올라온 것. 열띤 경쟁에서 선발된 팀들이라 다들 가수 못지않은 쟁쟁한 실력을 갖췄다. 사회를 맡은 노현정 아나운서는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갖춰 여는 전문 공연 무대와 다름없다"며 놀라워했다. 특히 가요제 중간 중간 한국어 교육센터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 지난 8월 퇴임한 객주군

(교육학) 교수 등이 실력을 뽐내 호응을 얻었다.

이 날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으로 모교를 찾은 이덕화 동문 외 7명의 연예인 등문들은 가요제 무대에 올라 인사들 해 객석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뛰어난 가창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룹 '빅마마'가 출연해 관객들과 호응을 맞춤으로써 분위기를 돋웠다. 이 날 공연을 관련한 허정백(영문2) 군은 "축제가 굉장히 잘 준비돼 있어 놀랐다"라고 말했다.

가요제 대상은 여자 솔로로 참가한 김분금(사학 3) 양에게 돌아갔다. "무엇보다 가수인증서를 받아 좋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의 뜨거운 열기는 다음 날 열린 백상응원페스티벌로 이어졌다. '진달래'를 비롯한 여러 액션이 선보인 응원 축제에는 5개 응원단이 찬조 출연하기도 했다. 건국대 운명식 응원단장은 "예년과 달리 행사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며 놀라워했다.

초대가수들의 공연도 돋보였다. 유진

박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가수 싸이의 공연은 학생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한 순간 뜨거운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최유리(신방3) 양은 "백상단의 축제를 넘어 모든 동국인들이 참여해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목막가요제 때는 많은 학생들이 빅마마의 공연이 끝나자 심사결과도 보지 않은 채 빠져나가는 좋지 않은 풍경을 연출했다. 또한 백상응원페스티벌에서도 사회자가 지각해 초반에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일진 리허설로 인한 소음이 근처 건물의 강기에 지장을 준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번 행사는 많은 학생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자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학교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 학생회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시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희 기자 naitake@dongguk.edu



메아리

도로아미타불

▲최근 입적한 법장 스님이 자신의 법구를 동국대병원·한방병원에 기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낸 대종사 스님이 다비식도 치르지 않고 의술의 발전을 위해 귀한 몸 바치신 것이다. 때문에 지금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혼란과 화합의 분위기가 넘쳐흐른다. 법장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합의 추대 형식으로 새로운 조계종 총무원장을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도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법장 스님이 남기고 가신 깊은 뜻 이어가야 함이 맞는 듯 한데, 지난 6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장 스님의 뜻을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 30여명의 스님들이 영배 스님의 이사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고 1시간의 이사회 휴회동안 고함과 막말이 난무했다.

▲조계종의 한 종책모임은 우리학교 영배 스님의 후임 이사회 선출을 총무원장 선거 뒤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오랜만에 조성된 화합의 분위기가 이사 선출을 둘러싼 각 종책모임간의 다툼으로 와해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지금 세간에선 법장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장기 기증을 서약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몇몇 스님들은 법장 스님의 정신을 까맣게 잊은 듯 하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상정됐던 안건 모두를 다들 이사회로 연기하고 끝이 났다. 불교종립대학에 와서야 수도승과 행정승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스님들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자들이 힘을 모아 세운 학교에서, 스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식순에 빠지지 않는 사찰서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학교가 불교종립대학임을 알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희 대학부장 gazababo@dongguk.edu

수요일, 동국은 음악에 젖는다...

동국인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엮는다.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에 흥백 빠져봅시다!!

2005학년도 2학기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10월 12일(수) 12:00 중앙도서관

♣ 첼로로 듣는 영화음악 ♣

첼로 : 홍지영
올리드 예비학교, 올리드 음대, 예일대 대학원 졸업
상상노블가운티 음악영재 예비학교 총감독

피아노 : 드미트리 코스마체프 (Dmitri Kosmachep)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현 수원대학교 음대 교수

동국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PUS
바이올린 : 김혜선(멀티미디어2), 김남윤(가정교육2),
한송이(멀티미디어1), 김민재(전기공1)

콘트라베이스 : 홍윤기(전기공2)
플룻 : 김지현(경영3)

프로그램
비발디 - 겨울 하이든 - 세레나데 Gabriel's oboe
Irlandaise
Por Una Cabeza
Moon River
My Way
Yesterday
지붕 위의 바이올린
백조
Memory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동국 락뮤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학내 구성원들과 락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상영하는 "라이브 공연실황"을 매주 화요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제5회 : 10월 11일(화) 오후 6:00 / 중앙도서관 A/V실
브리타쉬 하드락 특집 / Deep purple / Led zeppelin

■제6회 : 10월 18일(화) 오후 6:00 / 중앙도서관 A/V실
브릿팝 특집 / Radiohead / Oasis / Blur

■제7회 : 10월 25일(화) 오후 6:00 / 중앙도서관 A/V실
동국락페스티벌 2005 "WISH YOU ARE HERE" 동영상 및 미공개 영상

주최 : 동국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 락동아리 피어리스 락

진양메트로히트니스클럽 회원모집

■헬스 ■그룹 GX
■요가 ■찜질
■단전호흡 ■사우나

※ 동국대 학생 특별할인가 적용

문의 : 2277-3490, 8490
충무로역 9번 출구

문화단신.....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4일까지 9일간 부산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배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개막작은 허우 사오시엔 감독의 '썬리 타임즈'가 상영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73개국 307편의 영화가 △요트경쟁장 내 야외상영관 △메기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부산극장 △대영극장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화제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영화의 창 △한국 영화 회고전 △새로운 물결 10년 그리고 현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반갑다! 우리민화' 특별전

2005 한·일 우정의 해를 기념해 '반갑다! 우리민화' 특별전이 오는 30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자연을 품은 민화'와 '삶의 염원을 담은 민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서울역사박물관과 △일본민예관 △구라시키민예관 △시즈오카시립 세리자와케이스케이미술관 △스텐리참고관 △고려미술관 등 일본소재 5개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조선시대 민화명품 12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측 소장 민화들은 국내 최초로 전시되는 작품이 대다수라 눈길을 끈다.

매체비평

도서편

쇼퍼홀릭

무절제한 현대 소비문화 반성없이 답아



저미는 눈물의 결말 등... 독자를 뺏아들이는 글은 이 같이 광고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지독히도 공식적인 이러한 특징을 '쇼퍼홀릭'은 잘도 따라간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소설

'문장이 짧고 쉽다는 것, 상황에 맞는 심리를 빠르고 맛있게 묘사한다는 것, 극단적으로 완전한 신데렐라의 해피엔드이거나 아니면 가슴

은 그래서, 읽을 때는 즐겁지만 읽고 나면 팬스레 속은 느낌이 나고 역겨워져서 허무한 느낌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진다. 주인공 '레베카'처럼 정신 나간 귀여운 쇼퍼홀릭의 신용불량자에서 하루아침에 훌륭한 TV경제 조연가가 되고, TV 토론의 적수였던 돈 많은 남자와 갑작스레 사랑의 밤을 보내게 되며,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재무관리를 다짐하는 일은 우리의 현실 근처에는 전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은 또 다시 시커먼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레베카가 힘들어할 때마다 먹고 싶어 하는 달콤한 초콜릿을 독자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극적인 해피엔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애초부터 쇼퍼홀릭독자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려는 마음은 없다. 그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도 이해해주고 그런 여자들의 자기 합리적인 묘사를 멋지게 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여자(또는 남자가) '레베카' 식의 여자는 아니다. 따라서 이 소설이 빠른 스피드로 상황 상황 변화하는 레베카의 심리상태를 스케치했다고 평가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일부 언론의 찬사처럼 여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언론사의 서평도, 책 팔아먹기에 급급한 출판사의 로비에 넘어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창문과 시계가 없는 백화점은 환한 조

명, 구매욕을 자극시키기 위해 고객 모르게 뿌려놓은 향, 천천히 움직이도록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통해 고객을 지배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고 있다. 레베카가 그렇듯이 누가 봐도 쉽게 명품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쇼퍼홀릭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모임에는 레베카가 말하는 '파이낸셜 타임지' 같은 저명 경제지를 옆구리에 끼고 가야 윗사람을 씹어도 진지해 보이는 것이다. 박물관이나 서점도 쇼퍼 이미지 대상일 뿐이다. 기업들은 현대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과 합리적 기억력이 줄었다는 사실을 잘도 알고 있다. 레베카가 훌륭하게 생긴 나무 그릇을 보며 저런 걸 누가 사겠냐고 생각했

다가 점원이 유명 잡지에 등장한 물건이라며 잡지 찢은 걸 보여주자, 곧바로 '백색의 미니멀한 공간'에 잘 어울릴 만한 물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자신의 안목을 칭찬하며, 친구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고 사버리는 것이다. 구매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쇼퍼홀릭독자나, 브랜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상품의 이미지에 탐닉하는 브랜드마니아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처량한 모습은 곧 잡혀 먹힐 줄 알면서도 풀 뜯어먹기 위해 목동의 지시에 움직이는 초원의 소처럼 현대 사회가 만든 우울한 단면이다.

허운정
사회학 박사과정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주임연구원

문화실험실 '인디'야 놀자~

조용필로 대표되는 주류와 들국화로 대변하는 비주류 진영과의 조화가 빛났던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이 성취한 전신만고의 성공을 90년대의 음반산업은 처참하게 배신했다. 이 천민적 자본은 돈이 될 것 같아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대기업 자본과 코스닥 상장 효과를 노린 투기성 자본의 진출 장단에 이성을 잃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 돈에 환장한 그들의 눈은 진지하고 연대감 있는 뮤지션들을 쓰레기 통에 처 넣었으며 연 말마다 정산해야 하는 대기업의 결산 대차대조표를 장기적인 투자와 오래 갈 수 있는 뮤지션을 발굴해내는 안목을 외면했다. 그리하여 백만장 신드롬은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상하게도 대차대조표의 결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의 음반산업은 과연 어떤 마법에 걸려든 것일까?

그것은 나중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결실을 안겨줄 저변의 자양분을 단지 즉각적인 이익에 눈멀어 그 뿌리부터 제거해 버린 데 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음반을 세탁기나 자동차와 혼동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환멸의 90년대는 탐욕적인 이윤 동기밖에 남지 않는 문화산업 자본이 또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순에 의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이 과당경쟁과 과당 배급의 사슬에 걸려드는 위안에서 한 앨범의 손익분기점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음악 밖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는 마케팅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장부에 올릴 수 없는) 비용의 추가를 결국 탈세와 불법적 유통으로 떠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UIP의 지배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다가 합리적인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인해 간신히 재도약의 아슬아슬한 발판을 마련한 한국 영화의 지난 연대와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된다.

대중음악의 중요 의제로 등장
그렇다면 우리가 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클럽에 기반한 인디 문화를 지명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이다. 90년대 중후반 한국 인디문화의 성립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 첫 번째는 1996년 정태춘의 단독투쟁에 의해 63년만에 획득된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검열이 철폐되면서 자유분방한 표현 욕구가 표출을 뚫고 지상으로 분출될 기회를 획득했다. 두 번째는 자연발생적인 소자본에 의한 클럽 커뮤니티의 형성. 이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지하 연습실 혹은 개인 스튜디오에서 고립되었던 비주류 진영 뮤지션들의 최종우물적 상상력과 날 것의 오리지널리티를 찾던 소수의 청년 수용자들이 항상적으로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기적적으로 움켜 잡았다. 세 번째는 현행의 음반사 등록법의 배타적인 조항을 교묘히 피해 나간 인디 레이블 '인디'의 등장과 제반 인디 프로덕션의 출현. 크라이닝 넷을 제외하고 음반 판매량이라는 대중적 척도에서 만장을 넘어서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처량한(?) 신세이지만 클럽·인

디 레이블들이 이 짧은 기간 중에 거둔 성과와 유무형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고 먼 곳에서 하나씩 우리의 자양분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대중음악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다.
튼튼한 문화성장의 밑거름
인디는 '인디펜던트(independent)', 곧 대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예술가들의 자치만 위대한 상상력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주류 문화의 필연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집수한 속의 토끼와 같다. 이들로 이루어진 튼튼한 문화적 밑거름이 없는 한 주류도 한류도 세계 시장의 경쟁력이 없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은 자명하다. 강력한 문화는 곧 튼튼한 인디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다른 아닌 것이다.
강현
대중음악평론가



일러스트=〈현〉

노동적 인디영화 감독 인터뷰



“다양한 실험정신 인정하는 관객 늘어나길”

우리 영화계는 언제부터인가 '홍행'에 민감해졌다. 때문에 자신의 촬영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감독보다 대중이 좋아할만한 영화를 찍는 감독이 더 인정받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사의 대거 자본 지원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흐름이 있다. 바로 '인디영화'다. 영화 '마이 제너레이션'은 이러한 '인디영화' 중에서도 기존의 주류 영화를 답습하지 않은 참신한 제작방식을 구축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마이 제너레이션'의 노동적 감독을 만나 인디영화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마이 제너레이션'은 어떤 영화인가.
= 영화는 평범한 젊은이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냉혹하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자신의 꿈과 점점 멀어져가는 청춘들이 그 주인공이다. 평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영상 일기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 인디영화의 특징은.
= 일단 대중성과 흥행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에 비해 자본에서 자유롭다. 또한 그

만큼 다를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해 평소 생각하던 여러 가지 것을 영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스태프들도 매우 소수로 구성돼있어, 친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려운 점은.
= 대중성과 상업성에서 멀다보니 결국 관객을 모으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즉, 배급사나 극장이 흥행여부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막혀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사정

이 이렇다보니 제작비를 지원받는 것도 힘들어 사비를 들여 영화를 제작하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인디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 먼저 관객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관객들이 인디영화를 접하는 방법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작품성'으로 관객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디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각이 다양한 문화와 실험정신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O〉
lee123@dongguk.edu